

## 금융개혁 1번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이창영  
(중국금융연구원, 대표)

■ 중국 국무원은 2013.7.3일 금융·무역·항운 등 5개 부문의 개방내용을 담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종합방안, 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을 발표함.

- 자유무역시범지구(FTZ: Free Trade Zone)로 선정될 경우 각종 세제 우대 및 정책지원 등을 통해 역내 금융·물류 센터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하이, 톈진, 선전, 청두, 충칭, 샤먼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음.
  - 시범지구 범위는 상하이 양산 보세항, 와이까오차오(外高橋)보세구와 보세물류단지, 푸동공항종합보세구 등 4개 보세구역의 28평방킬로미터임.
  - 이번 조치는 기존 개혁개방 정책과 마찬가지로 점-선-면 원칙에 따라 시범 지역에서 우선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임.
  - 상하이가 동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금융·서비스업 등의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금융·서비스업이 발전한 상하이가 선정된 것으로 판단



- 주 : 1)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은 와이까오차오 터미널 2곳,  
푸동(浦東)국제공항 및 양산항  
2) SCT은 Shanghai Container Terminals의 약자

■ 동 조치는 정부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에 나섰다(積極主動對外開放)는 점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이는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위한 새로운 개혁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인 데다 현재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전세계 무역 및 투자 규범의 재구성 움직임 하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
  - 동 시범지역이 상하이 주변지역의 경제·무역·금융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중국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며 경제개혁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이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 및 대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 버전(升級版)'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강조

■ 이 조치는 관세 면제 등 무역부문 뿐 아니라 자본자유화·위안화 자유태환 등을 포함한 금융시장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동 조치와 관련하여 국무원은 정부의 무역·투자관리 방식 혁신 및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을 통해 중국경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정부개혁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 본 무역시범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자본항목의 위안화 태환 후 완전한 자유태환을 실시하는 금융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 다만, 지역 내 기업은 위안화의 자유태환을 고려하고 있으나 개인의 경우는 아직 검토하지 않음.
- 금리자유화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지역 내 기업은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외국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가

■ 향후 상하이는 자유무역항으로서 국제적 인지도가 제고됨은 물론 금리와 환율자유화, 위안화 자유태환 등을 통해 2020년 세계적 금융허브로 부상할 예정이다.

시 기	주 요 조 치
1990. 4월	국무원, 상해포동지구 개발 구상 발표
1990.11월	상해증권거래소 설립
1992.10월	국무원, 상해포동신구 설치 비준
1994. 4월	외환거래센터 설립
1996. 4월	전국 은행간콜센터 설립
1996.12월	포동신구에서 외자금융기관에 대해 위안화업무 시범 허용
1999.12월	상해선물거래소 설립
2002. 3월	중국은련(신용카드결제망회사) 설립
2002.10월	상해 황금거래소 설립
2005. 8월	중국인민은행 상해총부 설치
2006.12월	8개 외자은행이 법인은행으로 전환하여 본점을 상해에 설치
2008. 9월	중국인민은행 산하 개인신용정보센터 설립
2009. 3월	상하이시, '상해시 국제금융중심지 건설 추진 조례' 발표
2012. 4월	위안화의 달러대비 일일변동폭 0.5%→1.0%로 확대
2012. 6월	예금금리 상한 1.1배, 대출금리 하한 0.8배까지 확대(→0.7배)
2013.7.3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전체방안> 발표
2013.7.20	대출금리 하한 폐지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는 관세 면제 등 무역 분야가 강조된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금융개혁의 시범지역으로 활용되면서 역내위안화센터로 부상할 예정이다.
  - 중국 정부는 그동안 홍콩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대만 등 지역을 위안화 국제화와 자본자유화를 위한 역외위안화센터로 구축하였음.
  - 금융개혁 3化(금리자유화, 환율시장화, 위안화 국제화)를 달성하기 위한 시범 지역으로 상하이를 선정하면서 향후 홍콩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대출금리 하한선을 폐지(7.20일)함으로써 금리자유화를 위한 큰 걸음을 이미 내딛었으며 향후 금융시장 개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향후 상하이가 역내위안화센터로 부상할 것에 대비하여 베이징을 허브지역으로 하고 있는 우리 금융회사들은 해당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작성자: 중국금융연구원 이창영 대표)

(자료: 金融時報, 新華網, 中央政府門戶網, 人民日報, 百度 )